

#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 Parental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3-6 aged Children

박 성 옥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Park, Sung Ok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arental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nd to fine its reated variables.

Subjects were consisted of 108 working mothers who had children from 3 to 6 ages. The measurement instruments are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sting the following parts; Parenting Daily Hassles, Employment Subjective Expected Utility, Beck Depression Inventory,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Temperament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 based on frequency, percentile,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Parental stress of working mother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working mothers' negative attitudes for their occupations.
2. The higher working mothers' depression resulted in the higher working parental stress.
3.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difficult temperament and parental stress of working mothers.
4. The influential variables on parental stress of working mothers were mothers' attitude to her occupations and children's temperament.

### 1. 서 론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면서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원의 욕구수준도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오늘날의 부모역할은 과거에 일상적으로 수행해 왔던 것과는 달리 그 역할 수행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이혜란, 1984; 이은숙, 1988), 아울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져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박해미, 1994; 한세영, 1996).

특히 여성의 경우, 모성애에 대한 전통적 태도, 즉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

의 보호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은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과정에서 구속감과 스트레스를 남성보다 더 많이 느끼게 한다. 더욱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취업을 할 경우, 이런 전통적인 신념으로 비롯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자녀들이 잘못되면 질책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아이들의 문제조차도 그 원인을 어머니의 취업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돌보며 집에 있어야 한다'는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 온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야기

한 결과로 여겨진다. 확실한 근거조차 없는 이러한 믿음은 자녀의 교육을 타인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가는 취업모들의 죄책감이나 불안의식을 부추겨,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러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됨과 취업을 결합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과업은 상호배타적이기 때문에, 두 역할의 통합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울러 취업모들은 실제 가족가치관은 아직도 전통적인 경향을 많이 지니고 있어 그에 수반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핵가족화되어 있어 과거 다른 가족원의 도움을 받아왔던 자녀 양육과 교육의 역할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취업모를 대신하여 어린자녀를 양육할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성격이나 인지발달 등에서 아동의 초기발달에 어머니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와 맞물려 조기교육의 강조, 자녀교육의 지원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취업모들은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는데 한계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취업모가 겪는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 자신의 정신건강이나 나아가서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를 위협하는 양육스트레스의 관련변인을 밝히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취업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과제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가정과 실증적 연구결과를 기초로하여 우리나라 취업모들이 갖는 양육스트레스의 특성을 개념화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변인을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취업모를 위한 영,유아 탁아와 같은 제반 여건이 매우 빈약한 시점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영,유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족기능회복을 도모하는 사회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설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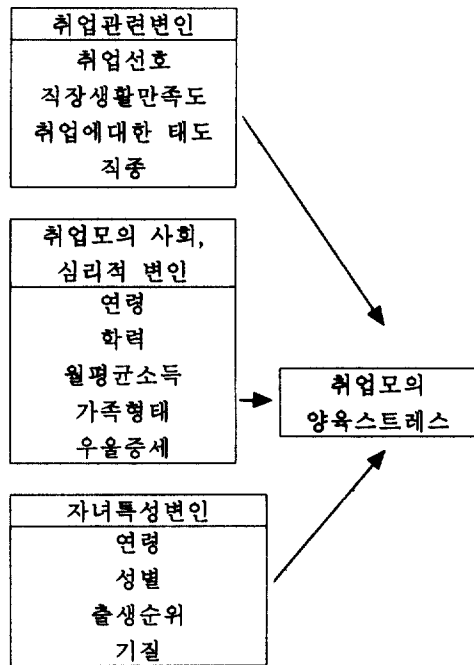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과 관련된 변인(취업선호, 직장만족도, 취업에 따른 태도, 직종)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취업모의 사회(연령, 학령, 월평균소득, 가족형태), 심리적(우울증세)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자녀특성(연령, 성별, 출생순위와 기질)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취업모의 직장만족도, 취업에 대한 태도, 우울정도와 자녀의 기질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얼마나 설명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II. 이론적 고찰

###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연구는 주요생활사건 즉 사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정적이고 사건적인 생활변화가 개인의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rason, Johnson, & Siegel, 1978). 그러나 최근에는 주요생활 사건보다는 일상적

인 스트레스사건으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을 더 잘 예측해 준다는 견해(Lazarus, DeLongis, Folkman, & Gruen, 1983)가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경향에 따라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Crnic & Greenberg, 1990; Crnic & Booth, 1991)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사적인 경험보다는 반복적이고 만성적 경험 즉 일상적 스트레스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5세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한 Crnic과 Greenberg(199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주요생활 사건보다는 일상적 스트레스사건이 부모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 이들은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빈도보다는 사건을 지각한 강도가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심리적 건강에 있어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을 부모가 어떻게 지각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Lopta(1971)는 대부분 여성들은 어머니역할에 혼돈을 일으키며,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거나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고 한다.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여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쳐 가정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Gove와 Hughes(1979)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기간 지속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어머니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이나 불안증상을 초래한다고 언급하였다.

## 2.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제변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학대나 이혼 등의 부정적인 아동의 행동과 부모의 역기능이 많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변인들과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Abidin, 1990) 현대사회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 이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일으킬만한 많은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아동을 가진 부모가 지각

하는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자녀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규명된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우울과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와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특성과 취업유무,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같은 어머니의 취업관련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것과 자녀의 성, 연령, 출생순위와 기질과 같은 특성외에도 배우자의 지지나 가족지원과 같은 가정환경 특성이 있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는 젊은 어머니는 나이든 어머니에 비해 자녀양육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견해(Belsky & Steinberg, 1978; 윤진, 1984)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권경희, 1985; 전세경, 1988)들이 일치되고 있지 않는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역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유희정(1992)와 진미정(1993)은 고학력일수록 스트레스의 양과 심리적 손상이 적으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따른 부담을 덜 겪으며 자신감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정민자(1992)는 교육수준에 따른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다. 박성옥(1993)은 취업으로 인해 자녀에게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죄책감, 슬픔, 불편함, 근심 등의 반응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우울성향이 강한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충족시킬만한 심리적, 물리적 에너지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주장할 수 없을만큼 행동이 위축되어 있으며(Webster-Stratton, 1988), 자녀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 국내 연구로는 고성혜(1994)가 우울성향이 강한 어머니는 자녀양육이 생각했던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자녀의 특성과 관련해서 Crnic과 Booth(1991)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들이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더 강하게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박해미(1994)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Mash와 Johnston(1990)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일수록, 고성혜(1994)는 활동이 지나

치거나 공격적인 아동인 경우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한세영(1996)은 부모와 아동간의 성격특성(기질)이 맞지 않을 때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서 보다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

가족특성으로 살펴본 가족형태는 스트레스의 유의한 변수가 아니라는 남유리(1989)의 연구와는 달리 이정우와 장병욱(1987)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제시하고, 반면 최승순(1987)은 확대가족일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제변수들의 연구결과가 다소 일관되지 않게 제시된 점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의 양육스트레스의 유의한 영향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경우, 직장에 나가있는 동안 자녀의 양육을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비취업모와는 또 다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리라는 가정하에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관련된 주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연구는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조사대상자들을 수집하기 위해 거주지역,직종, 경제수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의표집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면접원들을 통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은 평균 32.37세이며,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58명(53.7%)로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276.81만원이었으며 취업모 개인의 월평균 소득은 112.08만원으로 가정의 전체 월 수입에 대한 취업모 수입의 비율은 40.96%로 꽤 높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분포는 판매직인 42.6%, 사무직인 25.9%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첫째, 취업모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Crnic과 Greenberg(1990)이 개발한 PDH(Parenting Daily Hassles)를 번안,수정해서 사용하였다. PDH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예비조사 결과 표현이 모호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2개 문항을 제외한 후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많이 느낀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한바, .88로 나타나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모의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취업에 대한 선호여부,현 취업상태에 대한 만족도, 직업의 종류에 대한 질문외에 취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Thomson(1980)이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취업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작한 취업의 주관적 기대 효율성(Employment Subjective Expected Utility)검사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원래 7점 평점척도로 구성된 것을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거쳐 5점 Likert식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취업태도 요인으로는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인 외적 보상요인, 심리적 보상인 내적보상요인과 취업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규범적요인, 부모역할 요인, 남편과의 갈등정도를 나타내는 부부관계요인, 이중역할 긴장요인으로 모두 6개 요인이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각 요인별 .57 ~ .83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모의 우울증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eck(1976)이 개발한 우울한 상태에 대한 21개의 진술문에 대해 각각 그 정도의 4가지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넷째, 자녀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세 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되어있다.

**3.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1,4>의 취업선호와 직종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t와 F-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3>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취업에 대한 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취업과 관련된 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1) 취업선호여부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취업을 선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취업선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통계치 취업선호여부	N	Mean	SD	t값
선호	57	2.99	.60	-1.04
비선호	51	2.87	.56	

n.s.

위의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취업선호 여부에 따라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어머니, 가정주부로서의 다중역할로 인해 시간부족 등의 긴장과 우리나라 취업모들은 직장인, 취업선호 여부 관계없이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상태와는 무관하게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어머니들이 집에 있기를 선호한 어머니들보다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취업상태와 취업선호 사이의 불

일치가 어머니의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Hock와 DeMeis(1990)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2)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직장생활 만족도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산출한 결과(표2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만족도	.09

n.s.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라는 가정과 아울러 취업모의 경우,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자녀와 충분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여러 죄책감 등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는 가정이 혼합되어 서로 상쇄된 결과로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취업에 대한 태도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취업에 대한 태도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상관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Pearson의 적률상관계의 r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취업에 대한 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취업 태도	양육스트레스
외적보상요인	-.02
내적보상요인	-.08
규범적요인	.31***
부모역할요인	.39***
부부관계요인	.27**
역할긴장요인	.20*

\*p<.05 \*\*p<.01 \*\*\*p<.001

<표3>에서 나타난 바처럼, 취업에 대한 태도 6요인 중 경제적 이익을 주는 측면에서의 외적보상과 자립과 자아가치 같은 심리적 보상을 나타내는 내적보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취업에 대해 시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견해(규범적 요인)가 강하다고 느낄수록( $r = .31, p < .001$ ),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의 유대와 시간과 관심에 많은 제약(부모역할 요인)을 받는다고 느끼며( $r = .39, p < .001$ ),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부부관계 요인)된다고 느끼며( $r = .27, p < .001$ ), 그리고 가사일이나 여가활동 등에 많은 제한(역할긴장 요인)이 있다고 느낄수록( $r = .20, p < .05$ ) 취업모가 보다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양육과 교육면에서 보다 많이 부정하고 불안해하며 이로 인한 죄책감까지 갖는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4) 직종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직종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4>로 직종간에 아무런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직종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직종	N	Mean	SD	F값
전문·관리직	17	2.94	.51	.62
사무직	28	2.81	.58	
판매직	46	2.99	.60	
근로·기능직	17	2.97	.60	

n.s.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직 취업모들은 보다 높은 경력을 지향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로 인해, 판매나 근로직 취업모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신체적 피로 등의 문제와 아울러 자녀의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주된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기대가 어느 직종에든 관계없이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취업모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1)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취업모의 연령, 학력, 월수입과 가족형태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밝히기 위해 t-test, F-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5>와 같다.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통계치		N	Mean	SD	t 또는 F값
	내용					
취업모의 연령	30세이하		31	2.93	.52	.20
	31-35세		59	2.91	.58	
	36세이상		18	3.01	.70	
취업모의 학력	고졸이하		50	3.03	.56	1.65*
	대졸이상		58	2.85	.59	
취업모 가정의 월수입	200만원이하		38	2.92	.54	1.66
	201-250만원		19	3.11	.69	
	251-300만원		27	3.00	.60	
	300만원이상		24	2.74	.51	
취업모의 가족형태	핵가족		79	2.95	.62	.43
	확대가족		29	2.89	.46	

\*p<.10

위의 <표5>에서 보는 바와같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고졸이하인 취업모의 경우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취업모에 비해 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교육수준 변인만( $t$ 값=1.65,  $p < .10$ )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일수록 스트레스의 양과 심리적 손상이 적다는 유희정(1992)와 진미정(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 취업모의 우울정도와 양육스트레스

취업모의 우울정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 6> 취업모의 우울정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우울정도	.17*

\*p<.05

<표6>에서 나타난바, 취업모의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자녀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다는 정적상관관계( $r = .17, p < .05$ )를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높은 우울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가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또한 우울성향이 강한 어머니는 자녀양육이 생각했던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고성혜(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 3. 자녀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 1) 자녀의 연령, 성, 출생순위와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연령, 성, 출생순위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 F-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7>과 같다.

<표 7> 자녀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통계치		N	Mean	SD	t또는 F
	내용					
자녀의 연령	3세		13	3.04	.53	.27
	4세		24	2.87	.56	
	5세		30	2.91	.53	
	6세		41	2.95	.65	
자녀의 성별	남아		49	2.87	.57	-1.04
	여아		59	2.99	.59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71	2.89	.57	-1.17
	둘째이하		37	3.02	.59	

n.s.

위의 <표7>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박해미(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Crnic과 Booth(1991)의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녀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기질 특성을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세요인으로 구분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r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8>과 같다.

<표 8> 자녀기질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자녀기질	양육스트레스
정서성	.27**
활동성	-.12
사회성	-.18*

\* $p < .05$  \*\* $p < .01$

<표8>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자녀의 기질 세요인 중 정서성과 사회성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내는 특성을 가진 아이일수록( $r = .27, p < .01$ ), 그리고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하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않는 아이일수록( $r = -.18, p < .05$ )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기분이 잘 변하고, 행동패턴이 불규칙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피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의 경우 부모들이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Mash와 Johnston(1990)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 4.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유의한 영향요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을 구명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태도 여섯요인(외적, 내적보상 요인, 규범적 요인, 부모역할 요인, 부부관계 요인, 역할긴장 요인)과 어머니의 우울정도와 자녀의 기질특성(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9>와 같다.

위의 <표9>에서 보듯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취업에 대한 태도 중 부모역할 요인, 자녀의 기질 중 활동성, 사회성, 정서성과 취업에 태도 중 규범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가 취업으로 인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beta = .27, p < .05$ ), 자녀의 기질이 끊임없이 움직이

고 행동하는 특성일수록( $\beta = .29, p < .05$ ), 비사교적인 특성일수록( $\beta = -.25, p < .10$ ),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일수록( $\beta = .18, p < .10$ ), 주변사람들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느낄수록( $\beta = .20, p < .10$ )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이 5개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

<표 9> 취업모 양육스트레스의 유의한 영향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통계치	B	$\beta$	R <sup>2</sup>	F값
취업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요인)		.22	.27**	.27	2.86***
자녀의 기질: (활동성)		.22	.29**		
자녀의 기질: (사회성)		-.24	-.25*		
자녀의 기질: (정서성)		.16	.18*		
취업에 대한 태도: (규범적 요인)		.14	.20*		
상수				.94	

\* $p < .10$  \*\* $p < .05$  \*\*\* $p < .01$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를 선호하면서도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타인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가는 취업모들의 죄책감이나 불안의식을 부추기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머니됨과 취업을 결합시키려는 우리나라 취업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취업관련 특성과 취업모와 그 자녀의 사회, 심리학적 특성 변인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본 논문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업모의 취업관련 특성 중 취업선호성과 만족도, 직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취업에 대한 태도 변인과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같은 결과는 취업상황 자체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

하기 보다는 취업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심리적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2.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취업모의 교육수준만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우울정도와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우울정도가 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성향이 부모의 행동을 위축하게 하므로써 자녀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또한 우울성향이 큰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3. 취업모 자녀의 연령, 성,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녀의 기질 중 기분의 변화 폭이 크고 화를 잘내는 정서적 특성이거나, 비사교적인 특성일수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남에게 양육을 맡기고 직장을 나가는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남에게 잘 가지않고 심한 격리반응을 보이는 비사교적이거나, 기질이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아이일수록 자녀양육에서 보다 많은 역할긴장과 갈등이 스트레스로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4.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는 취업에 대한 태도 중 부모역할과 규범적 요인과 자녀의 기질(활동성, 사회성, 정서성)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5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모두 27%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바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취업선호와 비선호의 변수까지 포함하여 비취업모와의 비교연구, 나아가 민족간, 계층간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검증해 보는 비교 문화적인 접근이 중요한 추후 연구과제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지만 직장일 외에도 기본적인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기타 여러 가지 다중역할에서 취업모의 역할긴장과 갈등이 더욱 가중된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배우자의 지지나 타가족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변수라고



여겨지므로 후속 연구에서 계속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아울러 취업모의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과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바를 밝히고, 이러한 노력이 취업모 가족의 심리적 복지와의 사회적·경제적 지원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호.  
 박성옥(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 박사학위청구논문.  
 박혜미(1994). 자녀양육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미림, 이기영(1995). 취업주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역할갈등과 이에 대한관리전략. 서울대 생활과학 연구.  
 이은숙(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인숙(1994). 도시 전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해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idin, Richard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payc.  
 Belsky, J., & Steinberg, L. D.(1978). The effects of day care: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0, 794-803.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Crn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Gove, W. R. & Hughes, H.(1979). Possible Causes of Apparent Sex Differences in Physical Heal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Social Review, 126-146.  
 Lazarus, R. S., DeLongis, A., Folkman, S., & Gruen, R.(1983). Stress and adaptational outcomes: The problem of confounded measures. American Psychologist, 40, 770-779.  
 Lopta, H. Z.(1971). Occupation: housew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sh, E. J., & Johnston, C.(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313-328.  
 Sarason, I. G., Johnson, J. H., & Siegel, J. M.(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46, 932-946.  
 Thomson, E.(1980). The value of employment to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551-566.